

2022년 극적인 하룻밤 정훈 (남자) 오디션 대사

움직임은 최소화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반신 위주로 촬영 부탁드립니다

전 상황.

친했던 선배 형과 옛 연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정훈.
썩썩한 마음으로 밥 한 끼 먹으려고 들른 뷔페식당에서
연어 초밥을 내놓으라며 엉겨 붙는 시후를 만나고
둘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새벽. 시후는 책상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다.
그 소리에 정훈은 뒤척거리다 잠에서 깬다.

정훈 거, 졸라 꿈지락거리네! 너 뭐하냐!! (수면제를 뺏으며) 너 밤에 뭘 그렇게
먹어. 이거 뭐야? (안에 약통을 발견) 수면제야... (순간 생각)
야, 그렇다고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지. 큰일 나 진짜.

정훈 다시 자리에 눕는다. 잠시 후 뭔가 싸한 기분이 느껴진 듯.

정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돌아왔어!!! (상황을 인지한다.) 씨발, 누구 인생 망치
려고 그래? 이 여자가 진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아우 졸라게 재수
없네 오늘. 내가 인마 니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너보단 내 나
이가 더 많은 것 같거든! 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다 생각은 해 봤지만 말이야
너처럼 실천은 안 해 인마.
아, 골 쏠려. 초밥 다 먹었다고 난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소리 지르
는) 야! 콘돔 어디다 버렸어? (시후가 한번 쓱 쳐다보자 뭔가 스치듯)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술 마시게 해놓고, 힘이란 힘은 다 빼놓
고, 내가 이래서 여자를 못 믿어. 아우!!! (자신의 옷을 챙겨서 나가려다) 야,
너 말이야 나 나가면 다시 약 먹을 거지?
(고개를 끄덕이는 시후) 이런 미친! 야, 아까 썼던 콘돔 찾아놓고 죽어. 목욕
은 했니? (시후에게 가서 냄새 맡은 후) 안했어!! 너 진짜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지 진짜...너 스토커냐? 너 혼난다!
(순간 되짚으며) 야! 뒤로할 때 내가 콘돔 썼냐, 안 썼냐? 썼지. 썼어.. 안 썼
어! 니 엉덩이에 아직도 내 정액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니가 스스로, 여기 이
약통에 약을 먹고 내일 아침에 시체로 발견됐다 해도 부검에 의해 수사는 너
의 자살이 아닌 내가 고의로 의도해서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난 살인자다!

2022년 극적인 하룻밤 정훈 (여자) 오디션 대사

음직임은 최소화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반신 위주로 촬영 부탁드립니다

정훈 대사 생략 가능

시후 (답답한 듯) 어쨌든 너랑 나랑 배신당했잖아. 억울하지도 않냐? 그리고 그 언니가 왜 나한테 너에 대한 얘기를 다섯 시간 동안 떠들어댔는지 너 아직도 모르지? (시후. 정훈 방에 걸려있는 우주현 사진을 던지며) 이 언니가 아직도 너 되게 좋아해! (사이) 근데 니가 애 떼라고 했다며? 좋아하는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떼라고 하는 남자가 어딴냐? (속엿 말이 입에서 맴도는 듯) 나쁜 놈들. 정훈 됐고!! 근데 넌 왜 하필 내 앞에서 죽어!!!

시후 남자들이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다. 그것도 못 도와주냐.

정훈 (어이없는) 그래서 니가 내린 결론이 뭐냐?

시후 (사이) 사람한테 쟈 큰 고문이 뭐라고 생각해?

정훈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기도 싫어!

시후 싫어도 좀 들어라!! (사이, 목소리가 약해지는, 떨리는)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4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남자한테 어떻게 흘렸는지 전 재산인 전세금 빼서 돈 빌려주고, 그 남자 애 지우고, 그 남자 결혼식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어 초밥 한 점 못 차지할 정도로 더럽게 인생 꼬이고. 그리고 아는 남자 꼬셔서 같이 자고. (정훈을 쳐다보는) 당신은 내가 걸레로 보이겠네. 정시후 인생 아무 놈한테 막 대주는 걸레로 끝나네 오늘. 당신은 재수 없게 나한테 걸렸다고 생각하고 적선해.